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November 30, 2023

Aloha MPC ‘Ohana,

Not too long ago on a morning off, I decided I'd try snorkeling over at Poka'i Bay. So I arrived there, got my gear out of the trunk of my car, and walked down to the water's edge. Where I was in the process of putting on my facemask when a child's voice spoke from behind me.

"Are you going to see the stingray, uncle?"

I turned around and saw a little girl holding her mother's hand.

"What stingray, honey?" I asked.

"Out there," she pointed offshore.

I looked and, sure enough, I could see a manta ray just beneath the surface of the water.

"Uncle," the little girl said, "he keeps going up and down, up and down. Go see what he's doing. Then come back and tell me."

What can I say, I'm a sucker for kids.

"Alright," I said. "You really want me to?"

"Yes," was her reply. "But be careful, uncle. He might sting you."

Knowing that wasn't possible, I swam a hundred or so yards out into the bay, where I watched the manta ray gracefully turning barrel rolls in the water.

I have a friend who calls manta rays the ballerinas of the sea, and they really are that kind of graceful. Enchanted as I was by the manta ray, though, I remembered my charge. So I turned and swam back to shore.

"Did he sting you, uncle?" the little girl asked.

"No, sweetheart," I said. "He's a manta ray. They're harmless, very gentle."

"Well, what's he doing out there?" she asked.

"He's turning summersaults in the water," I said. "That's how he eats."

"Oh, okay, uncle," she said, seeming satisfied with my report.

I was about to say goodbye and resume my swim when to my surprise she spoke again. "Uncle, do you want to see my seashells?"

"Baby, let the man..." her mother started to say.

"No, no," I said. "It's alright. Yes, please do show me your seashells."

"Okay. Come this way," she said, scampering up the beach.

As I paused to pull off my swim fins, she called back. "Hurry, uncle! Hurry! Come on! This way!"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¹ I thought to myself, picking up my pace.

¹ Isaiah 11:6

I'd only taken a few more steps, though, before she came skipping back my way herself, holding her cupped hands in front of her. "Look at my seashells, uncle," she said, opening her hands.

I looked and saw the shells of a couple little striped hieroglyph clams.

"Wow!" I said.

She beamed.

"Did you find those here?" I asked.

She proudly nodded yes.

"Well, those are really nice ones," I said. "Thank you for showing me."

"You're welcome," she said. "What are you going to do now, uncle?"

"Well," I said, "I think I might go back out in the water. Would that be okay?"

"Yes," she said decisively. "You can go now."

You can go now... That made me smile. Really, it made my day. Because it was fun – no, more than that, it was a delight – to see the world through a child's eyes, even if only for a few minutes. And who really could've refused to do the bidding of such a little charmer, anyway?

Not me, that's for sure. Because, like I said, I'm a sucker for kids.

Adults, on the other hand, sometimes get on my nerves, to be honest. I'm not proud of that, but I have observed it to be true. And I'm working on it earnestly, I assure you.

In fact, lest I grow lax in my efforts in that regard, whenever she senses that I may be getting a little grumpy, my wife will hold me accountable by saying things like, "Ron, do us both a favor and please stop being such a grouchy old man, okay?"

A straight-shooter, my Texas belle is. And in my case, sometimes such a reprimand is indeed called for. *When it comes to other adults.*

But I don't think I've ever needed a reminder like that where a small child was concerned. Because there's something inside me that just can't imagine ever treating a child with anything but the utmost kindness.

All of which has been prompting me to ask myself kind of a probing question: "Ron, if you can't imagine being unkind to a child, then at what age limit is it, precisely, that you think your obligation to be kind to someone else's child stops?"

Because the thing is, twenty year olds and thirty year olds and forty year olds and fifty year olds and sixty year olds and seventy year olds and eighty year olds and ninety year olds (you get the idea), they are somebody's child too. Just like that little girl at Poka'i Bay was someone's child.

We are all someone's child – every single one of us, from keiki to kupuna. And, on top of that, we are also, each and every one of us, God's child too.

And so, what if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ve been posing to myself is that there actually is no age limit, after which being kind to each other ceases to be incumbent upon us?

Because the truth is, there is indeed no such age limit. From life's first breath to its last (and beyond) every single one of us – all eight billion of us on this planet – we are all God's children.

And so, recognizing that, I'm trying to remember that that is in fact the case, and I'm praying too that God will remind me of it every single day. Because just as it was unthinkable to me to have been anything but kind to one small child one day not too long ago at Poka'i Bay, so I want unkindness to be no less unthinkable to me when it comes to all of the other children of God with whom I interact each day too.

Or to put it another way, like that manta ray which was so gentle and graceful, I want to be too. I want to express kindness with gentleness and grace to every child of God whom I meet each day – the big ones as well as the little ones. How about you?

Me ke aloha,
Pastor Ron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얼마 전 아침 쉬는 날 포카이 베이(Poka'i Bay)에서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도착해서 차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인데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오리 보러 가시나요, 삼촌?"
나는 돌아섰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무슨 가오리야, 애야?" 나는 물었다.
"저기요." 그녀가 앞바다를 가리켰다.
나는 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물 표면 바로 아래에 만타 가오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촌," 어린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위아래로, 위아래로 올라갑니다. 가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럼 돌아와서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바보이다.

”알았어.” 나는 말했다.

”정말로 내가 그러기를 바라나요?”

”예”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삼촌.

그 사람이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만으로 100야드 정도 헤엄쳐 나가서 만타 가오리가 물 속에서 우아하게 통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쥐가오리를 바다의 발레리나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우아해요.

하지만 만타 가오리에 매료된 나는 내가 맡은 임무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 해안으로 다시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그가 당신을 쏘았나요, 삼촌?” 어린 소녀가 물었다.

”아니요, 애야.” 내가 말했다.

”그는 쥐가오리야.

그들은 무해하고 매우 온순합니다.”

”글쎄, 그 사람은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가 물었다.

”그는 물 속에서 여름 돌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먹어요.”

”아, 알았어, 삼촌.” 그녀는 내 보고에 만족한 듯 말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수영을 다시 시작하려던 참에 놀랍게도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삼촌, 내 조개 볼래?”

”자기야, 그 사람을...”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말했다.

”괜찮아.

네, 조개껍질도 보여주세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해변을 질주하며 올라갔다.

내가 수영 지느러미를 풀려고 잠시 멈추었을 때 그녀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둘러요, 삼촌!

서두르다!

어서 해봐요!

이 방법!”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나는 [속](#_ftn1) 으로 생각하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내가 몇 걸음만 더 걸어갔을 때 그녀는 컵 모양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내 길로 꺾궂궂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조개껍질 좀 보세요, 삼촌.” 그녀가 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줄무늬 상형문자 조개 몇 마리의 껍질을 보고 보았습니다.

”우와!” 나는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여기서 그걸 찾았나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그거 정말 좋은 것들이야,” 내가 말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삼촌?”

”글쎄요.” 나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시 물 속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 이제 가셔도 됩니다 ...

그것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내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단 몇 분이더라도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것처럼 작은 매력적인 사람의 입찰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아이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어른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끔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내가 그 점에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심술궂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느낄 때마다 내 아내는 ”론, 우리 둘 다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발 그만 두세요”와 같은 말로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말 심술궂은 노인네, 알았지?”

스트레이트 슈터, 나의 텍사스 미인은입니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때때로 그러한 질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다른 어른들의 경우. —

하지만 어린 아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알림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아이를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탐구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론,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불친절하다고 상상할 수 없다면, 당신이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 제한은 정확히 몇 살이 됩니까? 다른 사람 애가 멈춰?”

왜냐하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오십 살, 예순살, 일흔 살, 팔십 살, 아흔 살(아시겠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포카이 베이의 그 어린 소녀가 누군가의 아이였던 것처럼 말이죠.

케이키부터 쿠푸나까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실제로 나이 제한이 없고 그 이후에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인생의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 모두, 즉 지구상의 80억 명 모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포카이 베이에서 어린 아이 한 명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도 불친절한 것이 나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그토록 온화하고 우아한 쥐가오리처럼 나도 되고 싶다.

나는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작은 자뿐만 아니라 큰 자에게도 온화함과 은혜로 친절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나 알로하,

론 목사

1이사야 11:6